

# 한국갤럽의 “2021년 한국인의 종교 및 종교인식조사” 결과에 대한 소고:

비종교인의 종교성을 중심으로

유 광 석

경희대학교 연구교수

## I. 들어가는 말

한국갤럽에서 1984년부터 수행한 한국의 종교 및 종교인식에 대한 조사는 학문적으로 종교통계의 중요성이 정당하게 인정받지 못하던 시기에 학계와 정부 관료는 물론이고 종교인들과 비종교인들 모두에게 종교의 양적 및 질적 변화에 대한 의미 있는 참고자료로서 기여했고, 여전히 다양한 분야에서 한국의 종교적 변화 추세와 현황에 대한 사회통계 자료로서 자주 인용되고 있다. 아쉽게도 본 조사결과가 외국어로 출간되지는 않아 한국의 종교통계자료를 요청하는 외국학자들과 외국 연구기관들에게 논자 역시 한국갤럽의 시기별 조사결과를 소개해주고 논자의 피상적 이해 수준에서 어렵게 설명해주곤 한다.

논자는 사회통계의 전공자도 아니고, 통계를 기술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전문지식을 겸비하거나 훈련된 사람이 아니어서 2021년 한국갤럽의 조사결과에 대한 기술적 분석보

다는 해석적 차원에서 그 결과를 분석하고자 한다. 예를 들어, ‘귀하는 현재 종교를 믿고 계십니까?’와 같은 질문 그 자체, 그 선택지로서 ‘믿고 있다’ 및 ‘믿고 있지 않다’와 같은 응답 여부에 따라 종교인과 비종교인을 구분하는 기준, 그리고 종교인과 비종교인 비율의 시기적 변화 및 종교에 대한 몇 가지 주요한 인식수준의 변화에 대해 종교사회학적 관점, 특히 종교시장이론에서 재해석하고자 한다.

본 소고는 2021년 갤럽조사의 조사 방식이나 그 결과에 대한 사회적 타당성을 검증하거나, 오류를 찾아내거나, 통계적 신뢰성을 평가하기 위한 목적을 갖고 있지 않으며 논자에겐 그럴 능력도 의지도 없다는 것을 먼저 고백한다. 다만, 이 글은 사회조사 방식과 결과에 대해 복잡한 차원의 종교현상을 계량적으로 단순화하거나, 조사결과 그 자체 또는 그에 대한 자신의 해석을 기정사실로 단정하거나, 외적 조건과 맥락에 대한 고려 없이 일반화하는 등의 위험한 지적 편견에 빠지는 것을 경계하는 차원에서 본 조사결과에 대해 다양한 해석이 가능하고 그런 다양한 해석에 우리의 눈과 귀를 닫아서는 안 된다는 것을 주장할 뿐이다.

## II. 주요 조사결과에 대한 재해석

*“비종교인의 증가는 한국사회의 세속화를 의미한다.”*

갤럽조사의 시기별 종교인구비율에서 가장 뚜렷한 특징은 한국성인의 종교인구비율이 2004년 54%, 2014년 50%, 2021년 40%로 급격히 감소하는 추세를 보인다는 점이다. 이러한 추세는 수많은 종교인들, 언론들 및 학자들에게 한국교회의 위기이자 한국사회의 세속화에 대한 통계적 근거로서 자주 인용되었고, 때로는 신의 피조물들이 타락해가는(또는 인간중심적 가치에만 몰입해가는) 개탄스러운 현실을 확인하는 신앙적 증거가 되었다. 다양한 이유로 사회통계의 중요성을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지만, 정치, 경제, 보건, 복지 분야 등의 일반적 사회조사와는 달리 종교 영역의 사회조사는 본질적으로 계량화하기 힘든 응답자들의 비유형적이고 비정형화된 인식의 흐름들이 조사결과에 내재되어 있다는 점에서 조사방식과 그 결과분석에서 더 많은 노력과 비용이 요구된다. 간단히 말하면, ‘종교를 믿고 있다(또는 믿고 있지 않다)’는 응답은 ‘올해 소득이 5천만 원 미만(또는 이상)이다’와 같은 응답과 동일하게 해석될 수 없다는 것이다. 왜 그런 것인가?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을 위해 우리는 다시금 ‘비종교인의 증가는 세속화의 증거’라는 주장(일명, 세속화명제)에 대한 재성찰을 필요로 한다.

[표 1] 인구주택총조사 기준 종교인구의 조사시기별 변화

Religion \ Year	National Demographic Census			
	2015	2005	1995	1985
Buddhism	7,619,332 (29%▽)	10,726,463 (3.9%△)	10,321,012 (28%△)	8,059,624
Protestantism	9,675,761 (12%△)	8,616,438 (1.6%▽)	8,760,336 (34%△)	6,489,282
Catholicism	3,890,311 (32%▽)	5,146,147 (74%△)	2,950,730 (61%△)	1,865,397
Confucianism	75,703 (28%▽)	105,575 (50%▽)	210,927 (56%▽)	483,366
Cheondokyo	65,964 (44%△)	45,835 (62%△)	28,184 (2.2%▽)	28,818
Daesoonjinlihoe	41,176 (33%▽)	(Jungsankyo 35,550)	62,056	no question
Wonbuddhism	84,141 (35%▽)	129,907 (49%△)	86,823 (6%▽)	92,302
Daejongkyo	3,101 (17.6%▽)	3,766 (50.4%▽)	7,603 (31%▽)	11,030
Others	98,185 (39.7%▽)	163,085 (4.1%▽)	170,153 (3%▽)	175,477
Religious Population	21,553,674 (43.9%)	24,970,776 (53%)	22,597,824 (50.7%)	17,203,296 (42.5%)
Total Population	49,052,389	47,041,434	44,553,710	40,419,652

[표 1]에서 종교인구의 변화추세를 살펴보자. 1500명 표본조사 방식에 기초한 갤럽조사와 달리 전수조사 방식에 기초한 인구주택총조사의 종교인구비율 역시 42.5%(1985년), 50.7%(1995년), 53%(2005년), 43.9%(2015년)로 2005년부터 2015년까지는 감소추세를 보였다. 하지만, [표 1]에서 보듯이 개신교 인구는 2005년 1.6%만큼 감소하다 2015년 12%나 증가하면서 2005년 결과를 두고 종교인들과 학자들이 한목소리로 개탄하던 사회 및 개인의 세속화 예상을 크게 비껴갔다. 게다가 [표 1]에서 적색(증가) 및 청색(감소)으로 표시된 시기별 종교인구 변동 폭을 보면 한국의 전체인구를 대상으로 한 인구주택총조사 역시 십 년을 주기로 그 변동 폭이 작지 않다는 점도 고려되어야 한다.

지난 30년 동안 전체 종교인구는 물론이고 (유교, 대종교, 기타 범주를 제외하면) 개별 종교들 역시 하나의 방향으로 일관된 패턴을 보이는 것이 아니라 시기별 증감을 너무 크게 반복해 왔다. 마찬가지로 이전의 갤럽조사결과<sup>1</sup>를 시기적으로 좀 더 확장해보면 44%(1984년), 49%(1989년), 47%(1997년), 53% (2004년), 50%(2014년)으로

1 한국갤럽조사연구소. 2015. 『한국인의 종교 1984-2014』, p.19.

시기별 증감을 반복하고 있다. 물론, 2004년부터 2021년까지의 시기로 제한하면 종교 인구가 감소하는 추세는 최근 갤럽조사에서 분명해 보인다. 다만, 2021년 조사결과는 아직 다른 사회통계조사들로 충분히 검증된 것도 아니고, 이론적으로는 다양한 관점에서 더 많이 논의되어야 할 부분을 우리 사회에 제공했을 뿐이며 그 자체로서 한국사회 또는 한국교회의 세속화를 증명하는 것으로 단순화될 수는 없다. “2021년 갤럽조사결과에서는 비종교인구가 증가했다”는 사실과 “2021년 갤럽조사결과는 세속화를 지지한다”는 주장은 분명히 구분해야 한다. 사실과 주장 간에는 상당한 논리적 비약이 있는 것이다. 특히, 개신교는 불교 및 천주교와 함께 한국 전체종교시장의 약 98%를 꾸준히 점유하고 있는 독점적 지위를 향유 해 온 종교라는 점에서 언제든지 새로운 신자 유입이 비교적 쉽고 빠르게 일어날 수 있다.

다음으로, 응답자의 종교적 정체성을 측정하기 위한 지표로서 ‘종교(religion)’와 ‘종교성(religiosity)’을 구분할 필요가 있다. 갤럽조사는 ‘귀하는 현재 종교를 믿고 계십니까?’라고 묻는 반면에, 인구주택총조사는 ‘당신은 종교가 있습니까?’, 한국종합사회조사(KGSS)는 ‘귀하는 어떤 종교를 가지고 계십니까?’라고 묻는다. ‘종교’를 묻는 설문들이 비슷하게 보이지만 좀 더 엄밀히 생각하면 각각의 질문 내에 적지 않은 가치판단이나 이론적 가정들이 숨어있다.

특히, 갤럽의 설문은 인구센서스나 KGSS와 다른 이론적 가정, 즉 종교와 믿음의 필연적 결합을 가정함으로써 갤럽에서도 스스로 인정하듯이 제도종교에 속한 사람들만을 종교인으로 잡는 체계적 편향성(systemic bias)을 갖고 있다(한국갤럽 2015: 16). 예를 들어, 내적 믿음은 없지만 종교에 속한 사람들도 있다. 믿음에 기초하기보다 아이들 교육이나 정서적 발달을 이유로, 정치·경제적 목적으로, 배우자, 부모형제, 친구, 자식들과의 좋은 인간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그리고 심지어는 무신론자도 그들만의 다양한 이유로 가끔 예배에 참석하고 교인으로 등록하는 경우도 있다(실제로 북미교회들에서 자주 보고되고 있다).

정반대의 경우도 훨씬 더 빈번하게 우리 주변에서 관찰될 수 있다. 폐쇄적인 교회조직, 권위적인 목사의 리더십, 불편한 교우들과의 관계에 염증을 느끼고 기성적 제도종교를 벗어났지만 여전히 종교적 믿음을 유지하고 있는 사람들, 즉 ‘가나안 교인’이라 불리는 사람들은 어떤가? 이러한 맥락에서 보면 그들의 응답이 무엇이든 우리는 단 하나의 설문조사 결과만으로 그들 모두를 종교인 또는 비종교인으로 구분하는 것이 얼마나 기계

적인가정인지를 깨달아야 한다.<sup>2</sup>

통계적 가정과 달리 현실 속 인간의 종교성은 현재 종교를 믿고 있는지 없는지와 같은 단순한 질문 하나로 파악하기에는 너무 복잡하고, 변화무상하며, 상호작용적이고, 맥락적인 것이기 때문이다. 통계적 진실을 찾기 위해 변수들간 종합적 상관성을 분석하는 것도 이러한 복잡성을 어떻게든 계량화하고자 하는 노력의 과정이며, 응답자 한 사람의 종교성을 파악하는 것조차 훨씬 더 복잡한 통계분석과정을 요구한다. 다시 말하면, 종교인과 비종교인의 구분은 통계적 편의를 위한 것이며, ‘귀하는 현재 종교를 믿고 계십니까?’라는 질문의 응답 여부를 기준으로 종교인이나 비종교인으로 구분된 사람들의 비율은 그들의 종교성을 포괄적 및 심층적으로 검토한 것에 기초한 결과를 포함한 것이 아니다.

*“남성보다 여성, 20~30대보다 고연령일수록 종교를 믿는 사람이 많다.”*

만 19세 이상의 성인을 조사대상으로 하는 갤럽조사에서 응답자들의 연령별 분포는 종교인구의 변동을 이해하는데 매우 중요한 함의를 갖는다. 하지만, 1984년부터 2004년 조사까지는 20대를 18-24세 구간과 25-29세 구간으로 양분하고, 2014년 조사에서는 다시 19-29세로 양 구간을 통합하면서 조사방법의 일관성을 스스로 훼손하고 있다. 특히 2004년까지는 50대 이상 인구를 하나의 구간으로 설계하여 60대 및 70대 이상 노령인구들의 종교성을 소홀히 다루는 듯했다. 2014년부터 60대 그리고 다음 조사에서는 70대까지 연령 구간을 세분화할 계획이라고 하니 늦었지만 바람직한 방향의 재설계라고 생각한다.

갤럽에 따르면, 2021년 조사결과의 주요한 발견은 고령인구가 젊은 세대보다 그리고 여성이 남성보다 더 종교적이며, 또한 20~30대 인구의 “탈종교 현상”이 가속되고 있다고 한다.<sup>3</sup> 이러한 갤럽의 요약분석을 액면 그대로 수용하면 한국사회의 젊은이들이 ‘종교’를 대거 이탈했고 그들의 ‘종교성’은 세속적 가치로 다 채워진 것처럼 해석할 수 있다. 특히 일선의 종교지도자들은 이것이 세태를 정확히 반영한 조사결과라고 믿고, 평신자들의 중

---

2 더 자세한 논의는 다음 줄고를 참조: 유광석, 2021. “한국의 인구주택총조사 종교문화에 대한 반성적 고찰과 개선 방향에 관한 연구.” 『신학과 사회』 35(2):235-364.

3 한국갤럽. “갤럽리포트: 한국인의 종교 1984-2021 (1)종교현황.” (2021.5.18일 공개) <http://www.gallup.co.kr/gallupdb/reportContent.asp?seqNo=1208> (2021년 8월 10일 접속)

교적 각성을 촉구하고, 타락해가는 젊은 영혼들을 구하기 위해 가용한 모든 물질 및 영적 자원을 동원해야 할 위기의식에 사로잡힐 지도 모른다. 어떤 종교인들은 이러한 세태가 코로나사태와 함께 인류의 종말론적 결말을 계시하는 것으로 확대해석하기도 할 것이다.

하지만, 나는 종교사회학자로서 위 조사결과가 학문적으로 얼마나 의미 있는 발견인지 강한 의문이 남을 뿐만 아니라 연령별 종교성에 대한 학문적 해석에 대해 다시금 고민을 하지 않을 수 없다. 이러한 추세는 이미 50년 전에 노벨경제학상을 받은 게리 베커(Gary S. Becker)의 가정생산모델(household production model)을 종교시장에 적용함으로써 하나의 가정 경제가 세속적 소비와 내세적 소비에 투자할 시간과 재화를 일생 동안 어떻게 배분하는지를 분석한 아지지-에렌버그(Corry Azzi and Ronald G. Ehrenberg)의 논문에서 연령효과(age effect)로 규명된 바 있다.<sup>4</sup> 간단히 요약하면, 그들은 왜 사람들이 나이가 들면서 종교활동에 더 많은 시간과 재화(또는 돈)를 투자하는지를 설명하면서, 종교활동의 한계생산이 나이의 증가로 감소하지 않는 현상의 원인은 노인의 교회참석률이 임금상승률의 함수로써 임금상승률이 상대적으로 낮은 여자나 노인의 경우 좀 더 시간집약적 방법으로 종교활동에 임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sup>5</sup> 인간이 나이가 들수록 그리고 여자가 남자보다 종교서비스 참석률이 높은 것은 사실 모든 시대 모든 사회를 통틀어 일반적 경향이다. 갤럽조사는 60대 이상 연령구간에서 이러한 일반적 종교성을 좀 더 명확하게 재확인했을 뿐이다.

다만, 해석상 주의할 것은 노령인구의 종교참석률이 높다고 해서 또는 청년 세대의 종교참석률이 낮다고 해서 ‘노령인구의 종교성이 청년세대보다 높다’거나 ‘청년세대의 종교성이 감퇴하고 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는 점이다. 종교참석률은 종교성을 측정하는 수많은 지표들(종교참석률, 기도, 헌금액, 교회봉사, 교우관계, 경전의 이해도, 정치경제적 태도, 가족환경, 일상생활태도 등) 중 하나의 척도일 뿐이며, 종교성을 평가하기 위한 유일한 기준도 아니고 최고의 기준도 아니다. 미국의 조사결과에서는 청년층의 종교참석률이 상대적으로 낮은 반면에, 대부분의 개종이 청년층에 집중되어 있고, 소득대비 헌금 비율과 경전에 대한 이해도가 소속종단을 불문하고 일반적으로 높게 나타난다.

---

4 Azzi, Corry and Ronald Ehrenberg. 1975. “Household allocation of time and church attendance.” *Journal of Political Economy* 84(3):27-56.

5 유광석. 2014. 『종교시장의 이해』. 서울: 다산출판사. p.58.

갤럽조사결과를 이해할 때 이러한 다른 변인들과의 관계를 좀 더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무엇보다 한국사회에서 청년세대의 종교참여율이 낮고, 종교를 믿지 않는 비율이 높아진다는 것은 다양한 관점의 해석을 낳는다. 그러한 조사결과를 단순히 청년세대의 세속화를 의미하는 것으로 단정하는 것은 청년세대의 종교성, 아니 인간의 보편적 종교성을 양적으로 너무 간단히 이해하는 것이다.

비종교인 (또는 무종교인)의 종교성에 대한 학문적 논의가 최근 다양하게 전개되고 있다.<sup>6</sup> 간단히 말하면, 비종교인들이 모두 반종교적이거나 종교에 무관심한 성향을 보이는 것은 아니다. 가령, 그레이스 데이비(Grace Davie)가 영국인의 종교성으로 표현한 ‘종교적 참석 없이 기존의 종교적 실천과 믿음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사람들도 있고 (believing without belonging),’<sup>7</sup> 기성종단의 권위주의나 물질주의에 염증을 느끼고 제도종교와 무관하게 자신만의 영성을 추구하는 사람들도 있고, 유교적 의식과 태도가 개인의 삶 속에서 뚜렷하지만 자신을 유교인이라 고백하기를 거부하는 사람들도 많다. 심지어 반종교적인 무신론자들조차 일정한 신념(atheism)을 갖고 있고, 과학적 합리성을 신봉하는 과학주의(scientism)조차 하나의 종교성으로 해석할 수 있다.

결론적으로 말한다면, ‘종교’가 없는 사람은 있을 수 있지만, ‘종교성’이 없는 사람은 존재할 수 없다. 종교성이란 기본적인 인간성의 하나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기성세대는 ‘종교가 없다’고 주장하는 청년세대의 새로운 종교성을 더 사려 깊고 성찰적인 자세로 이해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그러한 진지한 성찰과 노력이 없다면 청년세대의 종교성은 아틀란티스의 신화처럼 영원히 심해에서 깨어나지 못할 수도 있을 것이다.

### III. 맺는 말

지면의 한계로 갤럽조사결과와 해석이 얼마나 다양하게 전개될 수 있는지를 충분히 설명하지 못해 아쉽지만, 위에서 나는 해석을 위한 개념적 전제로서 ‘종교’와 ‘종교성’의 구분을 강조했다. 좀 더 엄밀히 고찰하면, 세속성(secularity)과 종교성(religiosity)의 경계조차 항상 명확한 것은 아니다. 모든 개념들이 그 경계가 분명한 것은 아니지만 종교 영

---

6 유광석. 2017. “종교없음 인구의 종교성.” 『한국사회와 종교학』. 서울대출판문화원. pp. 96-121.

7 Grace Davie. 1994. Religion in Britain since 1945: Believing without Belonging. Cambridge, Mass.: Basil Blackwell.

역의 용어들은 늘 중첩적이고 다의적이고 모호한 경계를 갖고 있다. ‘저 사람은 나보다 더 종교적이다’ 또는 ‘한국사회는 미국사회보다 더 세속적이다’라는 등의 표현은 성(the sacred)과 속(the profane)의 상대적 정도를 대립적 관점에서 인식한 것일 뿐, 성과 속, 종교성과 세속성의 통합적 본질을 부인하는 차원에서 사회조사결과를 이해한다면 사실에 대한 편견과 왜곡에 빠지기 쉬울 것이다.

A 교회에서 나는 신실한 교인으로 평가받지만, B 교회에서는 주변 교우들부터 믿음이 부족한 사람으로 평가받는 경우도 자주 경험하고, A 종교에서는 한낱 바위조각에 불과한 것이 B 종교에서는 신의 계시를 받은 우주의 중심이 되기도 한다. 시간, 장소, 생물, 무생물, 인간, 사회, 국가 등 하늘 아래 모든 세상만물과 세상만사가 때로는 세속계에, 때로는 종교계에 임재한다. 다시 말하면, 어느 순간 내가 교회에 교인으로 등록하고 세례를 받아 나의 종교적 소속이 무종교에서 A 교회 교인으로 되었다고 해서, 나의 내적 종교성이 무에서 유로 탄생하는 것은 아니다. 통계적으로 그것은 유의미한 변화일 수 있지만, 적어도 종교사회학적 이론에서 양자는 완전히 다른 차원의 문제인 것이다.